

‘펫티켓 캠페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나서

11월 한 달간 반려인 비반려인 상호존중 예절,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공유

무주군은 지난 6일 무주읍 반딧불시장에서 관련 공무원 등 2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펫티켓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내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에서 오는 30일까지 6개 읍면 산책로와 시장, 주택 밀집 지역 등지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노력해야 할 상호존중 예절을 비롯해 △동물 등록·안전조치 이행 여부, △배설물 수거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공유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반려인들은 △반려

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2m 이내) 및 인식표 착용해야 하며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타인과 일정 거리 유지,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장 이용하기, △맹견 소유자는 입마개 착용 및 책임보험 가입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은창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은 “현행법상 목줄·가슴줄 미착용과 동물 미등록은 과태료 20만 원, 인식표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며 “반려동

물 준수사항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만큼 준수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행정에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관련 내용 홍보와 지도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6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김서주 기자

상수도 확충사업 142억원 투입 미급수지역 해소

미급수지역 주민에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 기반 마련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의 수도물 공급을 위한 2026년도 상수도 확충 신규사업 3건에 총 14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사업 대상지는 담양읍 학동리 예술인 마을과 창평면 외동리·광덕리·유곡리·장화리, 가사문학면 연천리·경상리·지곡리·봉암리·가암리·인암리·무동리, 대덕면 입석리 등이다.

이 지역들은 그동안 지방상수도 미공급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컸던 곳이다. 현재 담양군의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85%로, 군은 2030년까지 93% 달성을 목표로 상수관로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신규사업이 완료되면 지하수 고

갈과 수질 불량으로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담양군은 올해 설계를 마친 창평면 유곡리·용수리 일대 상수도 공급공사를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신계정수장 확장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와 주요 식수원인 신계저수지 확충사업도 병행한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군민 누구나 깨끗한 수도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하루빨리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수도 확충을 통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덕현 기자

부안고향사랑기부자 초청 제2호 비호텔 개막식

부안군은 출포만 노을빛 정원에서 제2호 ‘비호텔(Bee Hotel)’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야생벌 봉봉이를 지켜주세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고향사랑기부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비호텔은 기후변화로 인해 서식지를 잃은 야생벌들을 위한 인공 서식지다. 단순한 설치물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생태계 복원과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담아 주민과 기부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생태 프로젝트’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제2호 비호텔은 출포만을

상징하는 ‘흰발농게’를 모티브로 디자인돼 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상징성을 함께 반영한 시도로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에는 ‘야생벌 봉봉이를 지켜주세요!’ 지정기부에 참여한 기부자 중 다섯 가구를 초청해 본인의 기부가 어떤 공간으로 실현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체험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부안군은 이들에게 ‘비호텔 분양증서’를 직접 전달하고 기부자의 이름이 새겨진 안내판 앞에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는 등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정중한 예우를 표했다.

먼 제주도에서 일부러 행사에 참석한 기부자도 있었으며 그는 “지정기부로 참여한 사업이 눈앞에서 이렇게 공간

으로 실현되고, 제 이름이 남겨진 걸 보니 기부가 정말 내 삶에 들어온 느낌이 있다”고 전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기부자의 이름이 새겨진 비호텔은 지역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상징”이라며, “앞으로도 기부자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예우와 감동 있는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막식은 기부자와 지역주민,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에 기여한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기부금이 실질적 환경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기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영민 기자

AI 기반 바이오 산업육성 5개기관 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공지능과 바이오산업을 융합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

전북도는 6일 도청에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5개 기관과 ‘AI 기반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안성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심기준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AI 기반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과 공동 추진 ▲AI 기술을 활용한 연구·산업 기반 구축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화 지원 등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AI 기반 바이오 산업의 신뢰성과 안전성, 사이버보안 지원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와 바이오산업을 융합된 지능형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상호 기자

블루존 프로젝트 사업 대상지 최종선정

전북도 특화사업, 남원형 고령친화 정주모델 구축 본격화…총사업비 2,044억 원



남원시는 올해 8월, 전북특별자치도가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고령자 건강 치유마을 조성사업 『블루존 프로젝트』’의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어, 남원형 고령친화 정주모델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블루존 프로젝트(Blue Zone Project)’는 총사업비 2,044억 원 규모의 전북도 특화사업으로, 주거·의료·돌봄·여가가 통합된 고령친화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주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전북도와 공동으로 고령자복지주택, 실버스테이, 의료요양시설, 체육문화시설, 건강지원시설 등 핵심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관련 제도 정비 및 국가 공모 연계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남원시 용정동 282번지 일원으로, 교통상 자락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KTX·달빛철도 남원역,

17번 국도, 고속도로 IC 등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어 정주여건 개선에 최적화된 입지를 자랑한다. 또한 주요 의료기관과 시내 중심상권이 인접해 있어,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형 고령친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최적의 기반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선정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남원시의 치밀한 분석과 전략적 대응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이와 함께 남원시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주요 시설 배치계획을 포함한 마스터플랜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신속히 착수하여, 체계적인 구체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는 ‘고령자 건강 치유마을 조성 협력 TF’를 공식 가동하고, 사업의 구체적 실행 방향과 조성모델 설계를 위한 공동 추진체계에 돌입했다.

신승민 기자

공영민 군수, 공공비축미 수매 현장 격려해

수확기 벼 수매 상황 점검, 생산 농가 애로사항 청취



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깨씨 무늬병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물량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며, 쌀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전남도로부터 2026년도 하 구암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과 관련해 총사업비 15억 원(도비 12억)을 확보했다.

우덕현 기자

서점 감소 시대 전주 동네서점은 25% 성장 기록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서점의 폐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주시는 오히려 동네서점이 꾸준히 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21년 기준 76곳이었던 지역서점이 올해 현재 95곳으로 늘어나 약 25%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주지역에는 자체적으로 문화행사를 운영하거나 다양한 개성을 가진 동네책방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러한 동네책방은 지난 2021년 10곳에서 올해 현재 19곳으로 90% 늘어났다. 이러한 반전은 시가 동네책방을 단순한 ‘책’을 파는 가게가 아닌 ‘생활문화 거점’으로 재해석한 결과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도서관 이용과 서

점 방문을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으며 책을 읽고 서점을 찾는 새로운 독서 흐름이 만들어졌다.

그 중심에는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 제도가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전주시립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쿼터 50포인트가 적립되고, 동네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도서점가의 20% 할인과 함께 대출로 적립된 포인트를 도서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책쿵20’ 서비스에 가입한 시민은 약 3만3500명으로, 이들이 구매한 도서는 총 54만5000권에 달한다.

책쿵20을 통해 올해만 약 22억5000만 원 규모의 도서가 지역서점을 통해

판매되면서 시민의 독서 참여 확대는 물론, 지역서점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시가 운영하는 ‘전주도서관여행’ 코스에도 동네책방들이 포함돼 시민과 책 여행자들은 ‘도서관해설사’와 함께 도서관과 복합문화공간을 둘러보며 책을 통해 도시를 읽는 여행을 즐기고 있다. 이 여행을 통해 책 문화를 즐기는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동네서점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등 지역서점과의 연계 효과를 높이고 있다.

박남미 본부장은 “전 국민이 도서관과 동네책방 등 책과 문화를 누리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신승민 기자